

세계도시 베이징을 이끄는 싱크탱크, 베이징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서울보다 27.8배나 넓으며 인구가 2배나 되는 수도 베이징*의 공간 계획 및 정책 연구를 책임지는 베이징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北京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이하 베이징시규획원)**은 1986년에 설립되었다. 베이징시 규획위원회 소속으로,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최고 수준의 계획 및 설계 기관으로 평가받는 베이징시규획원은 100여 개나 되는 계획설계 및 연구 성과로 국가·건설부·베이징시가 수여하는 과학기술진보상과 우수계획설계상을 받기도 했다.



총체규획소 소속
연구자들



공정종합소 소속
연구자들

“베이징시정시규획
설계연구원은
서울보다 27.8배나
넓으며 인구도 2배나
되는 수도 베이징의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공간 계획
및 정책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베이징 도시계획과 관리의 핵심

베이징시규획원은 도시건설 관련 거시정책과 각 항목에 대해 계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업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전체 시의 도시총체계획, 분구계획, 통제성 상세계획과 도시교통, 시 기초시설 등 시스템 계획에 대한 조직 및 편제, 지하 관로 네트워크 계획 종합업무
- 전체 시의 사회경제 발전전략 및 도시건설 중요 정책 연구, 정부 유관 부문과 각 구(区) 및 현(县) 정부 등을 위한 계획연구와 조언 등
- 계획방안의 기술 논증과 종합, 계획방안 기술심사 참여, 계획관리를 위한 기술서비스 제공
- 베이징시 도시계획기술 규정과 관련 계획 정책지표 작성

전문성과 네트워크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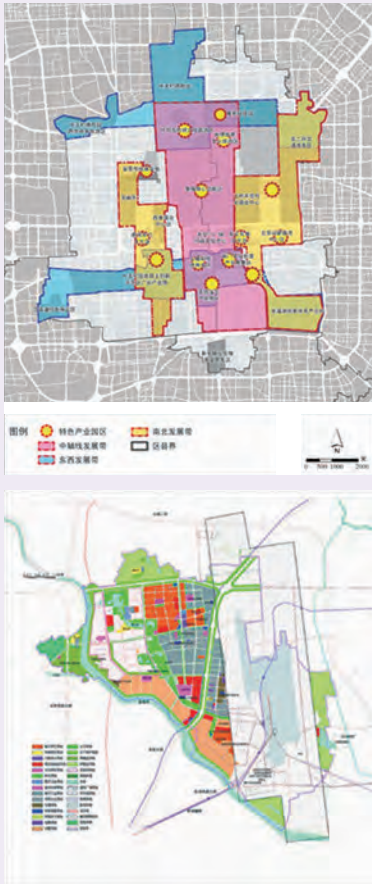
베이징시규획원은 스웨이량(施卫良) 원장을 주축으로, 4명의 부원장과 1명의 총공정사(总工程师)가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총체계획소(总体规划所), 상세계획소(详细规划所), 도시설계소(城市设计所), 시정계획소(市政规划所), 교통계획소(交通规划所), 공정종합소(工程综合所), 계획연구실(规划研究室)이 있다.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부서로는 계획정보중심(规划信息中心), 수석엔지니어링 사무실(总工程师办公室), 종합사무실(综合办公室)이 있으며, 당과의 업무 공조를 위해 당위원회 사무실을 두고 있다. 더불어 인사처, 행정처, 편집부, 노동조합이 있다.

현재 베이징시규획원의 전체 인원은 270명으로, 전문기술인력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고급 기술인력이 80여 명, 중급 기술인력이 80여 명이며 정부에 특별한 공헌을 하는 전문가가 4명이 있고, 18인이 국가수당을 받고 있다.

창립 이래로 베이징시규획원은 광범위하게 대외 학술교류와 기술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연구원 등의 조직과도 장기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의 계획설계사무소와 합작하여 다양한 계획설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 2015년 기준으로 베이징의 행정구역 면적은 1만 6,808km²이고, 상주인구(6개월 이상 거주 포함)는 2,170만 5,000명이다.

** 중국에서는 규획(规划)과 계획(计划)을 다르게 쓰고 있다. 그 차이점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규획의 범위가 계획보다 넓다. 규획이 거시적 관점과 전면적인 전망에서 전국 또는 일부 지구나 사업 혹은 비교적 큰 업무의 원칙을 다룬다면, 계획은 업무·생산·경영 및 학습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즉 계획의 규모가 더 작고 관련되는 내용도 규획에 비해 좁다. 둘째, 규획의 시간 범위가 계획보다 훨씬 길다. 규획의 시간 범위는 짧게는 20년까지 가능하나, 계획의 시간 범위는 짧고 그 시간 내에 특정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셋째, 규획의 내용은 개괄적인 반면 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규획이 목표·규모·전망·이상과 호소력을 담는다면, 계획은 임무·지표·시간을 정한다(출처: <http://www.wtabcd.cn/article/sort01/sort016/info-652.html>). 이 글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상 바람직하나, 우리 표현에 ‘규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에 ‘베이징시정시규획설계연구원’이라는 고유명사에서만 ‘규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상 핵심구 산업연동발전 안내도

자료: <http://www.bjghy.com.cn/ghy2Develop.aspx?menu=2&sideitem=21>

하 베이징 순이공항 구역 총체계획도

자료: <http://www.bjghy.com.cn/ghy2Develop.aspx?menu=2&sideitem=21&Tid=3>

주요 연구 성과

수도기능 핵심구 발전전략계획 연구(2010~2020)

베이징의 수도기능 핵심구는 중국의 정치·문화 중심 기능을 담는 공간으로, 2010년 7월 국무원이 정식으로 핵심구의 행정구획 조정을 비준하면서 동청구(东城区)와 총원구(崇文区)를 합병하여 새로운 동청구로, 원래의 시청구(西青区)와 쉬안우구(宣武区)를 합병하여 새로운 시청구로 통합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베이징시규획원은 베이징시 규획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핵심구의 목표, 발전전략 및 추진방식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베이징시 12·5 시기 역사문화명성 보호건설계획(北京市“十二五”时期历史文化名城保护建设规划)'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세계도시 계획 및 건설 연구

중국인 30년간 개혁개방을 거치는 동안 국가 역량이 크게 높아지면서, 베이징은 중국 수도로서 국제적 차원의 업무 및 경쟁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고자 '세계도시' 건설을 계획하였다. 먼저 '베이징 도시총체계획(2004~2020)'을 통해 베이징의 장기발전목표가 세계도시임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세계도시 계획 및 건설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도시총체계획 내에서 세계도시 목표 및 3단계 전략의 배경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도시 개념의 연원과 발전을 회고하고, 세계도시의 이해와 정의에 대한 세계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세계도시의 평가지표 체계를 만들고 베이징의 격차와 우세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베이징 세계도시 건설 전략을 내놓았다.

베이징 중심도시 중심지구 지하공간 개발이용계획 연구

베이징시는 합리적으로 도시 지하공간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 유효한 도시공간 개척, 토지자원 절약, 인민환경 개선, 역사문화명성보호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베이징시규획원은 도시총체계획에 근거하여 중점지구계획, 지하철교통체계, 지하철반시설체계, 지하공간의 방공방재, 지하공간의 생태환경보호, 지하공간의 역사문화명성보호 등을 연구하였다.

베이징 순이공항 총체계획 연구

텐주·호우사위(天竺·后沙峪) 지구는 중국 최대 항공운수 네트워크 중 가장 중요한 비행장인 수도공항에 인접해 있다. 경제 일체화 발전 전략에 따라 공항이 외부지구와 분리되고 교통수단의 단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서 다기능·개방식, 외부지구와 밀접한 발전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공항지구는 중요한 경제성장점이 되었다. 수도공항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텐주·호우사위 지구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여 건설투자의 중요 지점이 되면서 큰 규모로 공업구·별장구·주택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베이징시규획원은 현대 국제공항의 다문화 발전 방향에 적응하고 개별 건설구, 건설항목 간 협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베이징 순이공항 총체계획 연구'를 추진하였다. 계획범위는 텐주와 호우사위 2개의 진(镇) 행정구역으로 86.5km²이다. 계획기간은 2015년, 총 목표인구는 15만 명, 건설용지 총면적은 20km²이다.



베이징 도시총체계획(2004~2020)

공간구조 전략

자료: <http://www.bjghy.com.cn/ghy2Develop.aspx?menu=2&sideitem=21&Tid=1>

“현대 도시계획의
보편적인 흐름은
도시계획 수립과 실천
영역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베이징시규획원도 같은
방향선상으로 시민과
학생을 찾아가는
도시계획을 중요시하고
있다.”

생태베이징 인구 수용력 분석 연구

이 연구는 베이징시규획원과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중심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토지, 인구밀도, 녹색공간, 용수 및 수생태 압력, 에너지, 교통방식, 대기오염 등 단일 생태요소의 인구 수용력 제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생태 족적 및 전통성장을 방식을 이용하여 대비분석을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종합비교법·델파이법과 MALTEC 계획법 등 3종의 방법을 채택하여 상호 간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종합판단과 분석을 진행하여 생태베이징 인구수용력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베이징시 규획위원회 과학기술진보 2등 상을 받았으며, 연구 성과는 ‘베이징 도시공간발전전략 연구’와 ‘베이징 도시총체계획(2004~2020)’에 적용되었다.

베이징 도시공간 발전전략연구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중국성시규획연구원, 베이징시규획원, 칭화대학 등 3개 기관이 하나의 연구 조직을 형성하여 진행한 연구로, 베이징 도시총체계획의 선행 연구이다. 베이징의 도시공간 배치는 5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이미 하나의 기본적인 구조와 발전 방향을 형성하였다. 10여 년을 거치면서 경제와 사회, 객관적인 건설 조건의 영향을 받아 베이징은 기본적으로 단일 중심의 집적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중심도시 발전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자 이러한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계획을 단일 중심에서 다중심 구조로 변화시키고, 축상·방사·외연 발전 모식을 이끌어 냈다. 또한 시구(市區) 범위를 조정하고 배치 구조를 완성하였으며, 구역 간 협력 발전을 촉진하도록 베이징의 미래도시 공간배치 구상을 제출하였다.

역사도시와 참여도시를 향하여

베이징시규획원은 ‘세계도시’를 표방하면서 이에 걸맞은 현대적 도시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가 갖는 역사성을 크게 중시하고 있다. 그 핵심은 역사자원이 풍부한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다. 최근에는 베이징의 전통 주거지와 그 골목길인 후통도 중요한 도시역사자원으로 인식하여 교통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가치를 현대성뿐만 아니라 역사성 및 일상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베이징시규획원은 시민과 학생을 찾아가는 도시계획을 중요시하고 있다. 현대 도시계획의 보편적인 흐름은 도시계획 수립과 실천 영역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베이징시규획원도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선상에 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 구체성에서 참신하다는 느낌이 든다.

인터뷰에 응한 스샤오둥(石曉冬) 박사에 따르면, 시민을 위한 체험형 도시계획이라고 할 정도의 실천 프로그램들이 있다. 자전거 도시여행, 도시계획가와 함께 하는 도시재생 답사, 초·중·고생을 위한 도시계획 강좌 진행,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시민참여 확대와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국제적 성격을 띠는 베이징국제설계주간 행사의 주기적인 개최 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보다 내실을 갖추게 된다면 시민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일상에서 도시계획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자기의 삶과 어떻게 연결 지을지에 대해 깊이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TERVIEW



스샤오둥(石晓冬) 박사
(베이징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부총계획사, 연구실 주임)

Q 베이징 역사도시 보존, 건축설계 관련 최근의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연구원은 2016년 베이징 도시총체계획 수정 작업에 참여하여 일련의 역사 문화명성보호 연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관련 위원회나 각 구(區)와 협력하여 다양한 보호계획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도심 보호에 기초해 베이징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와 외부 성시(省市)에 대해 더 큰 각도에서 문화유산보호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기관과 역사문화가로구역보호의 기초 위에서, 공업유산보호·전통촌락보호·문화경관형성 등의 업무를 중시하였습니다. 중요 연구항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 ‘동쪽 34조에서 8조까지의 역사문화가로구역 보호와 발전계획 실시계획 (东四三条至八条历史文化街区保护与发展规划实施规划)’

원래 있던 보호계획과 계획실시평가의 기초 위에서, 가로구역이 갖는 현황과 특징에 입각하여 그 핵심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로구역이 담당할 역할과 핵심 임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추진을 목표로, 현존 문제에 대해 계획방안과 제도화를 건의하고, 가로구역 전체 품모보호·인구분산·주민생활개선·환경품질향상과 문화활력 부흥을 실현하였습니다.

• ‘베이징 후통 교통계획 연구(北京胡同交通规划研究)’

베이징 구도심인 후통의 교통계획 연구를 진행하여 최적의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구도심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도시 도로체계에서 후통이 갖는 위치 연구, 후통 정차구역을 시작으로 하는 전체 환경 개선, 후통 교통조직 연구, 후통 관리 및 계획 건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베이징 동남부 지구 역사문화자원 보수 (北京东南部地区历史文化资源梳理)’

베이징 서부와 북부 지구에서 동일한 과제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 지리의 발전과 변화’라는 이론하에 7곳의 주요 역사문화 흐름을 다듬고, 4곳의 핵심 역사문화 가치를 총결하였습니다. 또 시 구역 역사문화자원 수치를 종합하고, 북부·서부·동남부 3곳의 역사문화 특색을 비교해 이에 기초한 베이징지구 역사문화연구의 규범을 형성하였습니다.

Q 도시재생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지역공동체와 베이징 시정부의 협력 및 참여에 대한 베이징시규획원의 원칙과 전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연구원은 시민 참여를 매우 중시합니다. 계획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전략은 계획정보 공개, 계획교육 및 홍보, 협력적 계획 등 세 가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재 수리,
특색 발굴,
기초시설 개조,
환경 개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으로
점진적인 보호와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 계획정보 공개

2016년 베이징국제설계주간에 우리 연구원은 ‘도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3.0’ 전람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전람회에서 우리는 ▲시적인 자전거 여행 2.0 - 구도심편 ▲도시 공공공간의 재생설계 연구 - 베이징 구도심 사례 ▲우리의 도시 ▲도시계획가와 함께하는 베이징 후통 여행 등 4개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교통·공공공간·도시계몽교육·빅데이터·문화탐방 등을 포함합니다. 3년의 탐색을 거치며 베이징국제설계주간은 계획가가 도시계획을 실제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협력 플랫폼이 되었으며, 시민들은 베이징국제설계주간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을 이해하고 계획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획가는 베이징국제설계주간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도시계획 이념에 대한 탐색을 실제 실천하게 됩니다.

● 계획교육 및 홍보

우리 연구원은 적극적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관련 지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 연구원 계획가들이 베이징시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에는 ‘베이징역사문화와 보호’, ‘베이징 생명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2016년 베이징국제설계주간에서 ‘우리의 도시’ 계획과학보급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전시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협력적 계획

협력적 계획은 역사문화명성보호 형성의 개방, 다양한 주체가 계획 작업에 참여하는 시스템에 기초해 정부 부문과 동사무소·주민위원회 및 사구(社区) 주민, 사회인사의 공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특색 발굴, 기초시설 개조, 환경 개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으로 점진적인 보호와 발전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